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89)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9 (2)96사단 주둔지-(24)제주시 동부지역(종합)
해안·산간 곳곳에 진지...온 섬이 일본군 요새

입력 : 2008. 01.10. 00:00:00

주변 오름에 대규모 갯도진지 분포...당시 실상 규명 조사연구 뒤따라야





▲사진 위로부터 제주시 칠오름, 절물오름, 사라봉에 구축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갱도진지. 오름마다 많게는 20여곳에 이르는 많은 갱도들이 분포하고 있다. /사진= 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제주시 동부지역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만든 갱도진지가 집중 분포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서남부 일대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토사수를 위한 일본군의 전쟁기지로 요새화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실상과 일본군 군사시설에 대한 조사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사라봉과 별도봉 원당봉 안세미·밭세미오름 칠오름 열안지오름 노리손이 절물오름 건월악 검은오름(물чат오름) 등을 중심으로 집중 탐사를 벌였다.

이 일대에 대한 조사는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건도'를 비롯 '일본군 제주도병력기초 배치요도' 등 문헌조사와 현장탐사 및 증언 등이 병행됐다. 일본군 군사지도와 일본방위청 문헌자료에 따르면 이 일대는 일본군 제96사단 예하 293연대병력이 주로 주둔한 것으로 나타난다.

탐사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의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상황 및 주둔실태를 재구성해보면 중산간인 명도암마을 일대는 연대본부 및 예하병력이 집단 주둔했다. 당시 주둔부대는 제주시 산천단에 사단사령부를 둔 제96사단 293연대로 파악된다. 이는 마을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연대본부 및 예하부대들이 집중 배치됐음을 보여주듯 마을을 둘러싼 안세미·밭세미오름과 칠오름 열안지오름 노리손이오름 등은 하나같이 갱도진지 등이 구축돼 '주저항진지'로 요새화된다. 명도암 마을은 마치 병풍처럼 이들 오름들에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형국이다.

안세미·밭세미오름에서는 1백여m에 이르는 갱도를 비롯 10여 곳 이상의 많은 흔적들이 확인됐다. 칠오름에서 찾아낸 갱도 역시 짜임새 있고 완성도 높게 만들어져 취재팀을 놀라게 했다.

비교적 고지대인 절물오름과 견월악 등지는 '복곽진지대'를 형성했다. 휴양림으로 조성된 절물오름에서는 진입이 가능한 갱도와 입구가 무너진 흔적 등이 확인됐다. 견월악에서도 갱도 흔적 10여 곳이 확인돼 이 일대가 복곽진지로 요새화 했음이 드러났다.

해안가에 위치한 오름군인 사라봉과 별도봉 원당봉은 '전진거점진지'(前進據點陣地) 역할을 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공원으로 각광받는 사라봉은 길이 2백50여m 대형 갱도를 비롯 7곳의 갱도가 구축됐다. 당시 정상부에는 포진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별도봉 역시 오름 하단부 부터 종턱까지 모두 20여 곳 이상이 갱도가 만들어졌다. 특히 하단부의 갱도에서는 '4·3' 당시 무고한 민간인들을 집단학살 암매장한 유해가 발굴되면서 또다른 비극적 역사현장으로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사라봉·별도봉은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시민공원이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실태조사와 함께 효율적인 보전 관리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 명도암 안세미오름에 구축된 일본군 갱도진지. 갱도바닥에 동물뼈가 흩어져 있다.

이 뿐이 아니다. 현재 제주시 삼양검문소에서 신촌사거리에 이르는 아스팔트도로는 제주동비행장(일명 진드르비행장)으로 조성됐다. 진드르비행장 건설에는 당시 초등학교 어린이를 포함 많은 도민들이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제주시 동부지역도 해안의 전진거점진지에서부터 중산간의 주저항진지, 산악지대의 복곽진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지가 만들어졌다. 거기에서 군사비행장까지 조성되면서 이 지역은 일본토사수 및 미군 등 연합군과 최후의 일전을 위한 일본군의 핵심 군사지역으로 떠올랐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포커스]일본군 갱도진지 70여 곳 확인

취재팀이 제주시 동부지역 일대에서 집중 탐사를 벌인 결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구축한 갱도진지 등은 모두 7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사라봉에서 2백50여m에 이르는 갱도진지가 확인된 것을 비롯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주변 오름일대에서도 갱도들이 대규모로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갱도들은 제대로 실태조사 조차 안된 채 방치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동부지역에서 파악된 갱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사라봉 : 7곳(7곳) ▷ 별도봉 : 22곳(17곳) ▷ 원당봉 : 8곳(2곳) ▷ 안세미오름 : 15곳(3곳)
- ▷ 밧세미오름 : 15곳(1곳) ▷ 칠오름 : 3곳(2곳) ▷ 절물오름 : 6곳(3곳) ▷ 견월악 : 10곳 이상
- ▷ 노리손이 : 2곳(1곳) ▷ 열안지오름 : 1곳.

※괄호는 입구 진입이 가능한 곳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